

01 교회소식

영광의 부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예배 등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첫 열매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로 인해 받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영적 장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예녹 등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영적 장수가 되는 비결을 살펴본다.

04 간증

“제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김복례 권사와 47년 만에 오른쪽 귀의 청력이 되살아난 대만 천안치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784호 2017년 4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

2017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거행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4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2017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리며 저녁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된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중계 되는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부활’(행 1:11)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시 말씀을 전한다. 저녁예배 설교 후에는 이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있으며,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섬김과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부활절을 앞두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고난 주간을 보냈다. 4월 14일 금요일에는 한끼 이상 금식하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특히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금요철야예배 1부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주님의 눈물’(히 12:2)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2부에는 부활절 전야 공연이 있었다.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뮤지컬

‘주님의 눈물’은 새로운 만민찬양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분의 마음’ 등 6곡을 선보이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하였다.

여성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달걀을 아름답게 장식해 교회 주변 벤치 타운과 노인회관, 구로경찰서와 소방서, 금천경찰서 등 관공서에 전달하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아동, 학생, 청년 등 각 선교회에서는 기관별로 달걀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핸드북 증정



- 1부 죽음의 문턱에서 죽는 것이 효도 | 나 어릴 적에 몸부림 | 가는 세월
- 2부 기적 정 |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 | 모진 목숨 | 나의 누님 | 다시 태어난 생명
- 3부 오! 신이시여 새로운 삶 |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4부 연단은 소망을 나는 죄인이었다 | 주님의 십자가 살아 계신 하나님 | 할 수 있거든 개척 | 그릇
- 5부 함께하시는 하나님 | 축복받은 사람들 | 주의 음성 | 주관자 | 계시 내용
- 6부 소중한 삶 | 회상 | 어제 | 오늘 | 내일 | 모든 것에 감사를
- 7부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 이 모든 영광을 | 그분의 뜻대로 | 끝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우리북에서는 발간 3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제작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핸드북을 우리 교회 34세 이상 미혼 청년들로 구성된 가나안선교회연합회 후원으로 각 가정에 한 권씩 증정한다.

이 책은 7년간 죽음의 문턱에서 몸부림치다가 기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개척한 이재록 목사의 첫 번째 간증수기이다.

한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는 우리 교회 문서 선교의 첫 열매이자, 발간 이래 30년간 가장 사랑을 받아 온 스테디셀러로서 현재 16개 언어로 출판하여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신속히 변화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7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



지난 4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 ‘2017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사명자들은 거주 지역으로 구분된 1세대(1~9교구), 2세대(10~21교구), 3세대(22~32교구), 그리고 중국교구(중국 동포와 중국인 성도), 해외교구(국내 거주 외국인 성도)의 지역장, 조장, 구역장 총 1,670명이다. 이외에 광주, 구미, 대전, 마산, 밀양, 부산, 통영, 제주 등 전국 43개 지교회에서도 동참하였다.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헌신예배는 남구역장연합회 회장 이상원 장로의 사회, 남지역장연합회 회장 박흥기 장로의 대표기도, 구

미만민교회 여지역장 전재남 권사의 성경봉독이 있은 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대표자 특송(곡명: 나의 고백)에 이어 헌신자 전체 특송(곡명: 목자의 열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감사 이재록 목사는 ‘참마음’(히 10:22)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첫째, 거짓이 없어야 하고 둘째, 변개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참마음을 이뤄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신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진실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철저히 벗어버리고, 변개함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마음을 정하여 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신속히 참마음을 이룰 것을 다짐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요한복음 11:25~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자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의 육체는 순간에 회복되었고 그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의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목도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으며, 이 부활의 소식이 순식간에 유대 전역으로 전파되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2.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말씀하신 대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셔야 했지요. 로마 군병의 채찍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셔야 했고, 굶은 못이 손발을 관통하며 손가락만한 가시가 날카롭게 이마를 파고들 때도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주를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를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는 육적인 부활입니다.

3. 사도들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모델을 보여 주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슬픔에 빠진 여인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자 제자들과 여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믿어졌고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깨달아졌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었지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마음도, 필필 끊는 기름 가마에 던져진 사도 요한의 마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할 겨를이 없었지요.

이 외에도 수많은 성도가 배고픔과 목마름,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해 오

직 불같은 열정과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순간, 마치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환호한 마리아처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광스런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한 가운데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으로 바뀌어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잔치를 열며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천국 집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싸워 버리며 힘든 연단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굳게 붙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지요.

반대로 부활과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작은 사람들은 연단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세상으로 가거나 연단을 피하려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버리듯 그 생명이 끊어지므로 부활의 소망은 물론 재림의 소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죽음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는 예수님을 심히 사랑해 붙좃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나사르가 병들어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나사르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오셨습니다.

슬픔에 젖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나사르가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겠지만 이미 죽었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을 보시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무덤을 향해 “나사르야 나오라” 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살펴본 영적 장수의 자격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영적 장수의 자격이 무엇인지 깨달아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하나님을 신뢰해 순종한
아브라함
VS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났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도 그대로 순종해 고향을 떠났으며(창 12:1~4),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인 줄 알면서도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창 17장). 그렇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도 어떠한 말 한 마디 없이 즉시 순종했다(창 22:1~18).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셔서 이미 죄악이 관영해 멸하기로 작정한 소돔

과 고모라를 그의 간구를 통해 의인 열 명만 찾아도 온 성읍을 용서하시기로 그 뜻을 바꾸기까지 하셨다(창 18장).

정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행하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이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고 온 집에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친구같이 대면해 말씀하셨다(출 33:11 ; 민 12:3, 7). 또 정녕 악이 없고 모든 사람을 품으며 자신을 죽이려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그래서 권능을 보여주어도 순종하지 않고 거듭 자신을 대적하며 하나

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 항상 중보 기도를 드렸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라는 간구를 올릴 수 있었다(출 32:32).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여러 권능의 역사들을 크게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그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엄중히 경계하셨다(민 12장).

그러므로 영적 장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온 집에 충성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돌아오게 한
엘리아
V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엘리아는 유약한 성품이었으나 하나님 뜻이라면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 타락할 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인과 마주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림으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런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도 동행하고 보장하시므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왕상 18장). 엘리아를 잡으려고 왕이 보낸

오십 부장과 오십 인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다(왕하 1:10).

에녹은 선 썩기를 즐겼으며, 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늘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했고,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을지 늘 궁구하고 마음에 오는 바를 실행했다. 선과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살았음에도 유다서 1장 14~15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 에녹이 어떤 큰 사명을 이루거나 큰 권능을 행한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 삼백 년간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셨다(창 5:21~24 ; 히 11:5).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나타나며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영적 장수라 할 수 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변치 않은
사도 바울
VS
감사함으로
순교의 길을 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명예와 권세, 안락함을 버리고 모든 지식도 주를 위해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으며(빌 3:8), 변함없이 복음 증거에 헌신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 고난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한 번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치 않았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후 11:23~28).

결혼조차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열심으로 온 유럽과 아시아

를 다니면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고후 11:2).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좃았던 열심 있는 제자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마 26:69~75).

이후로 통회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용서하고 구원하시며 주의 사도로 높여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이런 고통조차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다.

정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깨우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영적 장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살전 5:24)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이뤄가길 바란다.

4

*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4.16~4.22

이재록 목사의 성령의 말씀

- 주님의 십자가
- 부활
- 죄의 뿌리와 성결 1
- 1차 영혼육 7-8
- 공부 잘하는 비결 6-10
- 천국 36-41
- 요한계시록 강해 60-68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4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GCN TV설교

- 용서 (이수진 목사)
- 위엿 것을 생각하라 (이미영 목사)
- 순종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61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31 (신동초 목사)
- 유월절 2 (정규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보기] 6
- 권능 스페셜 12
- 창조와 과학 9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0
- 내 마음의 찬양 6
- 모두 드려요 33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2
- 에스토니아 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7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참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김복례 권사 (5가나안선교회 지도교사)



우상을 섬겼던 저희 집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목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지요.

몸이 쇠약한 데다 독한 약을 많이 복용한 탓에 온몸은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부모님은 저를 살리고자 무당굿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 구실 못하겠거든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하셨지요.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막상 죽으려니 가족들이 떠올라 차마 죽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12월, 이웃집에 사시던 이정님 권사님의 전도로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셨던 어머니가 흥분된 어조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복례야, 네가 원장님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집회 장소에 찾아가 보니 아픈 남편을 대신해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살아가는 만민기도원 원장님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이복님 원장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하향 같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니 몸이 가벼워졌지요. 암 수술 후 시달리던 심장병, 위장병, 두통, 귀 울림 등 온갖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 등록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꿀을 먹으며 이전에 몰랐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살했다면 지옥에 갔을 텐데 이처럼 치료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보은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빌딩에 새마을문고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당회장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24년 동안 그 당시 제가 소속한 마리아

선교회에서 뜻있는 회원들과 함께 ‘책자 선교부’를 발족해 새마을문고중앙회, 군부대, 구치소를 비롯 일본,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까지 당회장님의 저서를 기증하게 되었지요. 한 권의 책자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하니 감사와 희열이 넘쳤습니다. 동참한 이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등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2010년 이후 저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희생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헤쳐 나가는 환경 속에 만들어진 의와 틀, 그리고 자존심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뜨리며 버려갔습니다. 또한 지금은 소천하신 어머니가 당시 수년간 병환으로 누워 계셔서 너무 힘든 상

황이었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고자 노력했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귀한 목자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지 못했기에 신앙생활도 의무적인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만큼 제 마음에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에 대한 신뢰와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한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지요. 2016년 10월에 부름받아 올해 63세의 나이로 5가나안선교회 평신도 지도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은 없었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피며 제게 주신 사랑을 전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천안치 성도 (53세, 대만만민교회)

“47년간 들리지 않던 귀가 이제는 잘 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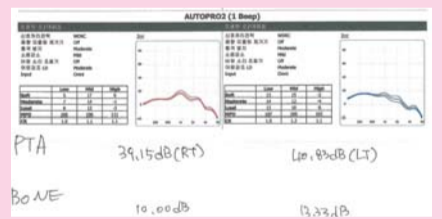
다섯 살 때, 장난삼아 왼쪽 귀를 후비고 있는 제 팔을 지나가던 아이가 치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 귀에서 피가 많이 나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뒤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고 오른쪽 귀로만 생활하니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양인통 집사님의 전도로 대만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치료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은 물론 불치, 난치병들을 해결받겠다는 소식은 너무 놀라웠는데, 특히 안 들리던 귀가 들린다는 간증은 정말 솔깃했지요.

저도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금식과 작정기도로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여 7월 3일 주일, 평소 GCN방송을 통해 예배 시 화면으로만 뵈던

당회장님을 직접 뵈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이 임했습니다. 당회장님과 악수까지 하니 행복이 물밀듯 밀려왔지요.

그런데 7월 4일 월요일 교육 첫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역을 들으려고 이어폰을 꽂았는데 왼쪽 귀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왼쪽 귀의 이어폰을 오른쪽에 꽂으니 동일한 소리가 났지요. 47년간 들리지 않던 왼쪽 귀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 왼쪽 귀의 청력이 호전되어 양측 모두 골도 청력 및 기도 청력에서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안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성로 424,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